

이스라엘 역사와 성서이해19

분열왕국

이스라엘 841-753/ 842-747

예후(2열왕 9-10)

여호아하즈(2열왕13,1-9)

여호아스(2열왕13,10-25)

예로보암2세(2열왕 14,23-29; 아모 7,10-17)

예후.

군대의 봉기를 통해 왕위 찬탈.(엘리사의 신탁과 예언자를 통한 기름부음)

오므리-아합가문의 모든 자손(70명)을 제거. 반대파 제압.

부상에 있던 여호람(요람)을 보러 왔던 유다임금 아하즈야를 살해.

아하즈야의 형제들도 살해.

야훼 제의 신봉자로 소개(아합의 처 이제벨을 위해 지은 바알 신당 파괴)

여호나답과 제휴(예레 35장)

분열왕국

바알 신봉자 숙청.

이제벨 숙청(페니키아와 외교적, 경제적 관계 단절)

유다와의 우호적 관계 단절.

'고립주의' 정책으로 인해 아람의 하사엘에게 참패.

요르단강 동편 땅을 아람에게 빼앗김.

여호아하즈.

예후의 아들.

다마스쿠스의 공격으로 군세가 약화됨.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구원자를 보내시어, 그들을 아람인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은 예전처럼 자기들 천막에서 살게 되었다.”(2열왕13,5)

분열왕국

구원자는 누구?

2가지 견해. 아시리아 임금 아닷 니나리 3세, 혹은 엘리사

여호아스.

다마스쿠스에 빼앗긴 성읍들을 되찾기 시작.

유다왕 아마츠야와 전쟁을 하고 예루살렘에 쳐들어가 신정과 왕궁을 약탈

예로보암 2세

북쪽 시리아 중심부의 하맛에서 사해까지 영토의 경계를 넓힘.

요르단 동편 영토를 완전히 회복.(예언자 요나)

아모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듣게 됨.

분열왕국

유다 841-740/ 842-733

아탈야(2열왕 8,17.26; 11,1-16; 2역대 22,10-23,15; 24,7)

요아스(2열왕 11-12; 2역대 24,1-27)

아마츠야(2열왕 14,1-14. 17-20; 2역대 25)

아자르야=우찌야(2열왕 14,21-22; 15,1-7; 2역대 26)

아탈야.

오므리의 딸이며, 예후로부터 살해당한 아하즈야의 엄마.

여왕으로 등극한 후 유다 왕족을 모두 살해.

→ (요아스가 살아남는데, 사제들이 보호)

예루살렘에 바알 신앙을 가져오고, 바알 신전을 짓도록 지원.

분열왕국

아탈야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틀어 유일한 여성 정치 지도자이지만, 신명기계 사관은 그녀를 다윗 왕조의 권리를 강탈한 반역자로 보기 때문에 '여왕(말카)'라고 부르지 않는다. 왕들의 어머니와 아내들의 이름은 성경에 꽤나 많이 남아 있는데, 역사 사건의 중요한 기점으로 소개되기도 한다.(이제벨, 아탈야 등) 이러한 여성 가운데 세 사람이 존귀한 부인/태후(게비라)라는 호칭을 받는데, 아사의 어머니 마아카(1열왕15,13), 아하즈야의 어머니 아탈야(2열왕10,13), 여호야킨의 어머니 느후스타(예레 13,18; 29,2)이다.

아탈야의 통치에 대한 성경의 해석과 새로운 제안점

분열왕국

요아스.

아탈야의 왕족 숙청 때에 사제들이 성전으로 빼내어 숨겨진 왕족.

→ 북부에서 페니키아의 바알에 대항해 혁명을 유도한 이는 예언자
남쪽에서 혁명을 부추긴 사람들은 성전 사제들(?)

제사장 여호야다와 왕궁 호위대의 폭동으로 다윗 왕조의 왕으로 등극.

아탈야는 살해 당하고 바알 제의는 진압.

성전을 대대적으로 보수.

건축을 위해 모금했지만 제사장이 유용한 예산을 직접 집행.

성전 보수를 위해 예산을 모으로 집행 시 횡령할 수 없는 제도 마련.

다마스쿠스 하사엘의 위협을 받음.

분열왕국

성전과 왕궁 창고에서 차출한 조공을 하사엘에게 보냄.

(아사의 정책-바아사의 라마 건축시 아람에 조공)

아람에 굴복한 일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 빠진 우상숭배(역대기 해석)

여호야다의 아들 즈카르야를 죽이는 악행

비참한 최후(2역대24,17-27)

38년이나 왕위를 지키고 신하 두 사람의 손에 암살

아마츠야.

왕국의 안정 후 아버지를 죽인 암살자 숙청.

산당을 없애지 않음.

에돔 원정에서의 승리.

분열왕국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에게 도전.

벧 세메스에서의 전투에서 패배 후 사로 잡힘.(남북왕국의 병합?)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과 왕궁 창고가 약탈당함.

패주 아마츠야를 향한 모반.

라키스로 도주하지만,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됨.

예루살렘으로 시신을 옮겨와 왕들 곁에 묻힘.

역대기는 아마츠야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 한 후 그들의 신을
➡ 섬기기 시작하였고, 이 때문에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에게 패배했다고
해석한다.(2역대 25,14-24)

정치적 관계성과 권력분쟁을 상상해볼 수 있어야.....
유다에게 왕조의 교체는 없다.

분열왕국

아자르야(우찌야)

이스라엘 예로보암 2세 치세 때(태평성대의 시기)

에돔과의 전쟁으로 엘랏 항구를 되찾음.

필리스티아와의 전쟁으로 성읍들을 복속시킴.

암몬인들로 부터 조공을 받음.(명성으로 인해)

군사력 보강을 위해 성벽을 재건, 군대 재정비, 무기 체제 개량.

왕궁 소유 가축떼와 농지를 생산적으로 관리.

(네겟에서 가축을 치고, 구릉지와 해안 평야에 농지를 마련하고,

산지에 포도원과 과수원을 조성하여 관리)

성전에 향을 피우려 하다가 나병에 걸림.

요탐(아들)이 부친이 사망할 때까지 섭정을 하게 됨.

분열왕국

이스라엘 753-723/ 747-724

즈카르야(2열왕 15,8-12)

살룸(2열왕 15,10. 13-15)

므나헴(2열왕 15,11. 17-22)

프카흐야(2열왕 15,23-26)

페카(2열왕 15,25. 27-31; 16,5-9; 이사 7,1-6)

호세아(2열왕 17,1-4)

예로보암 2세가 40년을 다스린 후 30년간 여섯 사람이 왕위에 올랐는데,
그 중 네 명이 자기 후임에게 암살 당했고, 다섯 번째 왕은 아시리아 군대에
포위 되었을 때 점령군에 의해 폐위 당함.

분열왕국

즈카르야

6개월간 통치.

살룸에 의해 암살.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

살룸

1개월간 통치.

므나헴에게 암살.

므나헴은 왕위 찬탈 후 자신의 왕위를 인정하지 않는 티르차를 공격.

므나헴

10년 통치.

아시리아의 침입(티글랏 필레세르-풀- 3세의 세력확장).

이스라엘의 모든 부자들에게서 강탈한 은 천 탈렌트를 조공으로 바침.

분열왕국

프카흐야

2년 통치.

무관 페카의 반란으로 암살.

페카

20년 통치.

아시리아의 위협에 대항하여 시리아 왕 르친과 군사 동맹.(시로-에프라임)

동맹 후 유다를 이 동맹에 가입시키기 위해 아하즈를 압박.(이사7,5-6)

아하즈의 거부와 예루살렘을 향한 군사적 행동.

티글랏 필레세르의 침공으로 인해 갈릴래아와 길르앗 지역을 빼앗김.(유배)

원래 영토의 절반도 되지 않는 소국으로 전락.

아시리아의 시리아 침공으로 인해 다마스쿠스 멸망.

분열왕국

호세아

페카를 암살하고 아시리아의 종주권을 인정. 매년 조공을 바침.

이후 아시리아에 반란을 도모하고, 조공을 거부하며, 이집트에 도움을 요청.

살만에세르 5세의 사마리아 포위(3년)와 점령.

메소포타미아 북부로 강제 이주.

사마리아에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포로들을 정착.

이스라엘 멸망, 반성과 사마리아인들의 기원

성경은 이스라엘 땅에 남은 백성들과 아시리아의 포로들로 편입된 백성들의 종교 예식은 혼합주의적이라고 묘사하면서, 야훼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 유배간 이들 가운데에서 사제를 불러들여 "베텔"에서 가르쳤지만, 이는 또 다시 혼합 종교주의 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기록하고 있다.

분열왕국

“베텔에 살면서, 그들에게 주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지 가르쳤다. 그러나 민족들은 저마다 자기들 신상을 만들어, 사마리아인들이 지은 산당들 안에 놓았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을 경외하면서도, 자기들을 유배시킨 민족들의 관습에 따라 자기네 신들을 함께 섬겼다.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옛 관습을 따라 하고 있다.”(2열왕 17,28.29.33.34)

→ 최소한 후기 유다 왕국의 관점이지만, 더 나아가 귀환 후 유다가 재건될 때 상황에서의 평가로 보인다.

유다 750-686/ 759-698

요탐(2열왕15,32-38; 2역대 27)

아하즈(2열왕 16; 2역대 28; 이사 7)

히즈키야(2열왕 18-20; 2역대 29-32; 이사 36-39; 잠언 25,1)

분열왕국

요탐

선왕 아자르야의 왕정에서 섭정으로 정치를 시작.
예루살렘과 유다의 다른 성읍에서 건축사업을 추진.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 조공을 부과(2역대 27,5).
이스라엘의 페카와 아람의 르친의 동맹이 시작.

아하즈

시로-에프라임 동맹에 가입할 것을 압박.
이스라엘-아람으로부터 예루살렘이 위협받고, 전쟁에 패배했다고 기술.
오넧이라는 예언자로부터 구원.(포로가 돌아옴)
남동쪽에서 에돔, 남서쪽에서 필리스티아의 침략(2역대 28,16-18).
아시리아에 조공을 바치며 원병을 요청.

분열왕국

충성을 맹세한 봉신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에 아시리아, 다마스쿠스의 제단건설 야훼 제의를 바꾸었는지에 대한 문제는 부정적.

➡ 아시리아는 봉신 조약을 맺을 때, 종주국의 신들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했지만, 아시리아의 제의형식을 따르라고 강요 하지 않았다.

유다의 조공과 종주권 계약으로 인해 티글랏 필레세르는 아람,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고, 패배한 시리아는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소국으로 전락한다. 십년 후 자주 국가로서의 독립마저 잃게 된 이스라엘 역사는 그 멸망의 과정에서 유다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국력이 약해지고 있던 이스라엘 이지만, 또 결국 아시리아에 의해 침공을 당해야만 했겠지만, 북왕국 멸망에 유다는 한 몫을 한 셈이다.

분열왕국

히즈키야

구리뱀을 파괴하는 등의 종교개혁을 추진한 인물로 소개.

멸망한 이스라엘의 백성도 유다의 과월절 명절에 참여하도록 초대
(2역대30,1-11)

필리스티아 원정을 실시.

아시리아의 봉신이라는 지위를 이어받아 제국에 충성.

시리아-팔레스티나 지역에서 반란을 계획할 때에도 불참.

이후 아시리아에 대항하는 반란군의 수장 역할을 함.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고 포위전에 대비하여 식수 공급장치를 마련.

산헤립의 침공과 예루살렘 포위.

분열왕국

아시리아의 군사 회군에 대한 3가지 다른 전승

2열왕 18,14-16	2열왕 19,7.37	2열왕 19,35-36
히즈키야의 항복과 조공재개	아시리아 내부 정치적 반란	전염병으로 군대 괴멸

바빌론 왕 므로닥 발아단의 사신 접견.

왕궁 창고와 병기고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

아시리아에 대항하는 반란에 가담하려는 목적이었을 것으로 추정.

아시리아는 유다의 봉신왕으로 히즈키야를 인정.

히즈키야에 대한 정보는 열왕기 하권과 역대기 하권을 비롯하여, 이사야서 역시 제공한다. 역사가들은 히즈키야의 업적을 야훼 하느님께 대한 오로운 신앙으로 해석하며, 이사야로부터 많은 신탁을 듣는다.

분열왕국

유다 697-586/ 698-586

므나쎄(2열왕 21,1-18; 2역대 33,1-20)

아몬(2열왕 21,19-26; 2역대 33,21-25)

요시아(2열왕 21,24; 22,1-23,30; 2역대 34-35)

여호아하즈=살룸(2열왕 23,31-34; 2역대 36,1-4; 예레22,11; 1역대3,15참조)

여호야킴=엘리아킴(2열왕23,34-24,6; 2역대36,4-8; 예레26; 36,1-2.20-32)

여호야킨=여콘야

(2열왕24,8-16;25,27-30; 2역대36,9-10; 예레29,1-2; 52,31-34)

치드키야=마탄야

(2열왕24,17-25,21; 2역대36,11-21; 예레27,1-3; 32,1-5; 34; 37,1-39,10 등)

분열왕국

므나세

가장 긴 통치기간을 가졌지만, 통치에 대해서는 알려진게 없음.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려'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고 기록.
(사건 자체에 대한 기록이 없음)

역대기는 아시리아에 끌려갔다가 풀려난 것으로 기록.
그 후 모범적인 왕이 되어 다시 야훼 신앙으로 돌아옴.
산당 제사는 그대로 남았지만, 야훼 신앙만을 하도록 했다고 주장.
열왕기 기자와 상반된 평가.

아몬

짧은 통치 기간(2년)
신하들의 모반으로 궁전 안에서 살해.
땅의 백성들이 모반한 자들을 죽이고, 아몬의 아들 요시아를 왕으로 세움